



작업일지

동두천과의 첫 만남

미군들은 클럽 골목을 지나가는 나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고 hey baby라고 부르며 연방 휘파람을 불어댔다. 나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못 남성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느끼며 약간은 우쭐한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무언가 폭력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었기에 나는 그들의 '희롱'을 피하는 대신 '세계' 보이려고 했다. 휘파람을 부르며 나를 부르고 있는 미군들이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며 걸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최대한 지적이고 사무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무언가 '용무'가 있어 온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가방에서 가장 두꺼운 책을 꺼내어 팔짱에 낀 다음, 마치 '기자' 처럼 보이기 위해 큰 렌즈를 부착한 내 EOS 사진기를 꺼내 어깨 사이로 뻗었다. 나를 '거리의 여자' 로부터 지켜주는 이러한 소품을 가지고 '나는 여자이긴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다' 식의 무언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보고 휘파람을 불며 장난끼 어린 목소리로 '몇 살이야' 고 물을 때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는 묘하게 웃으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 곳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로 끝까지 나를 향해 쫓혀 있는 시선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계급적으로는 너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에서 왔지만, 너희들이 보내는 성적 추파만큼은 재량껏 받아줄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말이다.

문제는 이곳이 내가 배낭여행을 온 여행지이고, hey baby를 연발하던 그들이 동양 여자를 처음 본 잘생기고 한량한 20대 동네청년들이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문제는 이곳이 군사도시라는 점이었고, 나를 부른 미군들은 겨우 19살 정도나 되어 보이는 돼지같이 생겨먹은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 거리는 무척 황폐했고 더러운 냄새로 진동을 했으며, 클럽들이 다다다닥 붙은 골목 안은 비밀스러웠고 '나'는 철저한 이방인에 불과했다.

골목을 휘돌아 기지촌의 모습을 대충 파악한 나는 동두천 2사단 바로 옆 담벼락에 붙어 있던 subway라는 미국식 샌드위치 체인점에 앉아 통유리 너머로 이 곳 풍경들을 좀 더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여기 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을 보게 되면서 길거리 한 가운데 위치한 그 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마치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하듯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시키고 기세 좋게 앉은 통유리 앞에서 나는 오히려 미군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오히려 큰 통유리 창가에 앉은 나를 길 건너편에서부터 알아보고는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혀로 입맛을 다시는 흉내를 내거나, 통유리 바로 앞에서 추파를 던졌다. 아마도 한국여성이 홀로 그 거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 당황스러워진 나는 할 수 없이 그들이 더 이상 내게 집중하지 않도록 먼저 시선을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고는 머리를 숙인 채 샌드위치를 먹으

며, 먹는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고개를 힐끗거리며 부지런히 그 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러시아 여성들과 만삭인 몸으로 미군을 끌어안고 가는 필리핀 여성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좌불안석인 나와는 달리 이 공간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그들처럼 눈에 띄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속한 어떤 사람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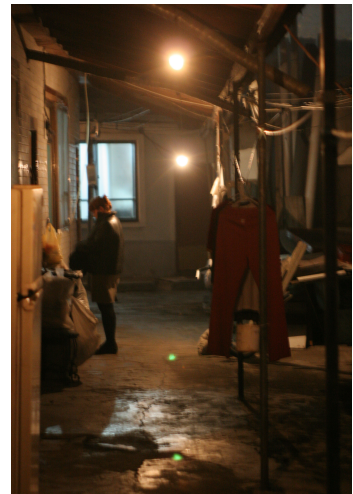


그녀는 그 곳에 없었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웃리치(outreach)를 나가던 날, 나는 동두천의 텃거리를 처음 가보았다. 그 날은 유난히 따뜻하고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었다. 나는 이미 ‘텃거리’에서 많은 수의 필리핀 여성들이 탈출하여 끔찍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 곳이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그 곳은 소요산 뒷자락 쭈뼌 되는 곳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마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했을 뿐 아니라 대낮의 마을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 마을은 부대로 향하는 신작로(?)를 중심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부대로 향하는 중앙로는 마치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황색의 먼지만 휘날리고 있었다. 새들은 높은 하늘에서 짹짹 거리고 있었고 막 돌아 나기 시작한 풀잎들은 예쁜 연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골목을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이 황량한 동네의 풍경에는 어울리지 않게 덩치가 아주 큰 클럽들이 무시무시한 그림들과 함께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치 한 사람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세트장 같은 이 동네에서 나는 웬지 모르게 이곳에 사는 나이든 한국여성들과 이주 여성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동네를 감싸고 있는 이 이상한 침묵이 금방이라도 쟁그랑-하고 깨지면서 마치 내가 이 여성들과 조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는 기지촌에 와서 처음 느꼈던 ‘오버된 감정’ 때문에 실재와는 많이 다른 왜곡되고 굴절된 상을 교정하는 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기지촌에 뭔가를 구하러 오는 사람은 실상 기지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보고 간다는 것을, 나는 내 경험 뿐 아니라 이 곳에 오는 다양한 학계, 예술가, 정치인, 종교인들의 행동으로 알게 되었다. 기지촌은 그저 자신을 비추는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었을 뿐이었다.



마리나의 최후

의정부 Camp Stanley 부대에서 미군이 줄어들자 뺑벌 출신 러시아 여성들은 하나 둘씩 동두천으로 거처를 옮기기 시작했다. 역시 의정부 뺑벌에서 오랫동안 살던 마리나가 동두천으로 이사를 갔고, 나는 그 해 11월 M의 생일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 후 마리나가 출산하여 딸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가 몇 명의 미군들과 뺑벌 출신 여성들과 함께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척추가 부서져 깨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자신의 집 옥상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기분 좋게 술에 취한 마리나는 별안간 난간위로 뛰어 올라갔다고 한다. 난간에 올라간 마리나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애들아, 나 좀 봐라~ 난 이렇게도 할 수 있다구”

그리고 그녀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2층 간판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후 옥상에서 보드카를 마시던 미군들과 러시아 여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흩어졌다. 미군들은 부대에서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러시아 여성들은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출국당할까 두려워, 바닥에 떨어진 마리나를 보고는 모두 놀라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불쌍한 마리나는 딸아이를 재우고 있었던 남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내려와 볼 때까지 그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뇌의 일부가 흘러나온 채 누워 있었다.

마리나의 추락소식이 전해지자, 동두천에서는 이른바 미군들과 ‘결혼한’ 러시아 여성들이 ‘불법체류’ 여성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은 미군과 결혼하여 아기까지 낳은 마리나가 불법체류 여자에게 의해 강제로 떠밀렸다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고, 마리나의 미군남편 주위로 몰려들어 혼자된 그를 위로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심지어 한국경찰과 미군 부대에 당시 마리나와 옥상에 함께 있던 여성들의 신상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물론 자신의 국민도 아닌데 미군부대나 한국경찰에서 나와 조사를 해주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내가 촬영하고 있던 M은 불법체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동거중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결혼한’ 동두천 러시아 여성들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미군들의 편이었고, 내가 이 사건에 개입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촬영을 하는 일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였다. 나는 결국 촬영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마리나는 혼수상태에서 그녀의 부모가 있는 러시아로 돌려보내졌다.



율리아의 사진 봉투

율리아의 집에 처음으로 놀러갔을 때, 의례 처음으로 친밀감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기 여성들이 그러듯 그녀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앨범을 내 앞에 펼쳐 내보이며 자랑을 시작했다. 기지존에 이주해 온 여성들의 앨범에는 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해 갔는지 그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현장’ 사진인 그녀들의 사진에는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의 촌스럽고 어정쩡한 모습부터 어느 정도 한국을 알아가고 미군들과 관계를 넓혀가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랑스러운 율리아(나는 가장 탈도 많고 순수했던 그녀의 캐릭터에 항상 매료되었다)의 사진첩은 다른 여성들보다 조금 특별했다. 그녀는 아직 미군과 결혼한 적이 없으므로 그동안 만나고 사귀어왔던 거의 모든 남자들(미군이든, 한국인이든, 이주노동자든)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고, 비록 그들과 지금은 모두 헤어졌지만, 사랑의 환희라든지 이별의 고통 따위의 추억이 많았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대부분 그녀의 애인이었던 미군들과 이주 노동자 남자친구들이 찍어 준 사진들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포착한 율리아의 생생한 표정과 감정 상태, 심지어는 완벽한 분위기
기와 빛, 구도 따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찍고 있는 여성들의 인물사진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생생함과 자연스러움에 그만 절망감이 밀려왔
다. 아무리 이곳에서 내가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나는 한 것(?) 미군들이 찍은
사진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진실한 순간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
문이다.

나는 율리아에게 다큐멘타리에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스캔을 해두기 위해 그녀의 앨범 속에서
좋은 사진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율리아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붙잡혔다며 내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동두
천에 남겨둔 자신의 짐들을 가져다 줄 것과 약간의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부리나
케 얼마의 돈을 챙기고는 그녀가 수감된 화성출입국사무소로 그녀를 찾아갔다. 곧 이어 그녀가 면
회실의 투명유리 안쪽에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내 사
진은 가져왔나’ 고 물었다. 나는 당황하며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러시아의 자기
집 주소를 불러줄테니 그리로 꼭 부쳐달라면서 ‘사진은 내 모든 것’ 이라며 꼭 부쳐달라고 신신
당부를 하였다. 나는 ‘그러마’ 고 약속했다.

결국 율리아는 수감된 지 한 달여 만에 풀면서 추방당했다. 그런데 나는 그녀가 결국 추방된 지 1
년이 넘도록 다큐멘타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녀의 사진도 돌려
주지도 못하고 있다. 하여, 가장 친진난만했던 그녀의 사진은 여전히 봉투 속에 담겨져 내 서랍 속
에 지금도 들어있다.

침 입

기지촌에 있는 한국 언니들은 내가 누구인지 척하면 다 안다. 그녀들은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이 기지촌에 '기지촌 여성' 이 아닌 여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언가 이 곳 사람들이 내놓기를 꺼려하는 무언가를 가지러 왔다는 것을 귀신같이 아는 것이다. 때로 언니들은 오히려 나의 촌스러운 거짓말과 아닌 척 함을 모른 체 해준다. 그러나 이 언니들에게 무언가를 얻기는 아주 아주 힘들다. 왜냐하면 둘 다 어차피 이 관계가 '게임' 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기에 온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은 내가 누구인지, 왜 자기 앞에 앉아서 말을 걸고 있는지, 상냥하게 대하는지, 집으로 초대받고 싶어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사실 내 작업에 대해 설명을 해 줘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와도, 그들에게 촬영 허락을 구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공간에 침입해 들어간다.





E의 오만

의정부 Camp Red Cloud 부근에 살던 E는 미군 헌병이었던 남편에 의해 버림받았다. 그는 결혼 중에 다른 필리핀 여자가 생겨 E와 그녀가 필리핀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1살짜리 아기를 버렸다. 당연히 큰 싸움이 일어났고 E는 남편의 목을 끊어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폭력적이고 정신착란적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남편과 미군부대로부터 격리조치 되었다. 그사이 남편은 E와의 사이에 낳은 1살짜리 아기를 납치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가 버렸다. 그 이후 E의 혼신을 다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각종 언론에 자기를 홍보했으며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의 부대로 찾아가 남편의 외도 사실과 PX물품 압거래 사실을 폭로했다. 미군부대에 의해 기소된 남편이 괴로워하자, 그녀는 아기만 다시 데려다 주면 다시 착한 아내가 되어 살겠다고 심지어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E는 부대로 남편의 상관을 찾아가 그의 모성본능을 자극하며, 미국에 데리고 간 아이를 크리스마스 기간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은 받아들여져 아기가 임시로 돌아왔고 E는 부대로 면회하러 간 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부대 밖으로 나와 버렸다. 그녀는 그 길로 항공사에 가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고, 자신의 부모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녀가 아기를 데리고 인천 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던 단호하고 지혜로운 E와 필리핀에서의 E는 너무 달랐다. 허름한 판자집에서 사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미군과 결혼하여 매달 생활비를 부쳐주던 E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잔심부름을 끊임없이 시키면서도 매번 짜증을 냈다. 더군다나 그녀의 아버지가 나에게 굶신거리며 시중을 들려는 것도 몹시 불편했다.

후에 나는 촬영을 동행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E가 다시 한국에 오는 비행기표값을 카드로 계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현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그녀의 고향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12시간정도 걸려 마닐라에 도착했다. 그리고 빈민 지역의 한 성매매 모텔(간판으로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하는)로 들어갔다. 방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침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새우며 지난 1년여간 남편과 미군부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웠던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갑자기 비장하게 말했다.

“어떤 여자들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지, 하지만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삶이라는 것은 굴러가는 바퀴와 같아. 올라갈 때가 있다면 추락할 때도 있는 거지.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 필리핀에 남겨둔 세 아이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대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직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미군남편의 신고로 출입국사무소에 붙잡혀 필리핀으로 강제출국당하고 말았다.

G의 자존심

G는 뺑벌에서 클럽을 다니다 ‘너무 사는 게 지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미군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손님 중 한 명을 골라 결혼 했고, 그 후 클럽을 그만 두었는데 결혼한 지 3개월도 안되어 그녀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그 미군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지만, 그 미군 역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자명하여, 결혼생활은 건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편은 ‘네가 죽으면 내가 부대에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는 줄 알아? 만달라가 넘게 받을 수 있다구’ 하며 걸핏하면 임신한 G를 쫓다. 그는 결혼 후 부대에서 나오는 가족 수당 (약 1000불, 한화 약 100만원)을 챙기고는 그 돈을 술을 마시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데 썼다. 그는 생활비 일체를 G에게 주지 않아 G가 거의 굶을 지경에 이르자, 그녀에게 하루에 1달러씩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달 부대에서 미군 사병에게 나눠주는 한국라면 박스를 갖다 주며 ‘자기 라면 좋아하지? 라면 많이 먹어’ 라고 말했다.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한 G는 스트레스로 배속에서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다. 그들은 서로 별거에 들어갔고 G는 공장에 취직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어느 날 G는 남편이 자신의 모든 서류와 짐을 챙겨 미국으로 떠났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G가 이혼을 하지 못한데 있었다. 그녀는 1년을 넘게 미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법률상담과 민원을 청구했고 그 기간 동안 죽을 것처럼 괴로웠지만 스스로 많이 똑똑해졌노라고 나에게 후에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성단체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문제를 끈질기게 요구하여 미군부대로부터 이혼을 승낙 받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다. 그 후 공장에서 다시 클럽으로 직장을 옮긴 G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부쳤다.

G가 나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나와 비교적 동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과, 그녀가 아주 똑똑하여 심지어 내가 다큐멘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연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동두천에서 러시아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나에게 여러 가지로 냉정한 조언을 해주며 러시아 여성들을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 저돌적으로 무조건 들이밀고 찍어야지, 나처럼 커피 마시고 마트에 데리고 가서 음식 사주고 생활비를 보태주며 여성들과 먼저 사귀는 다음에 다큐멘타리를 찍으려 하다가는 10년도 모자르다며 나를 보고 바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그저 러시아 여성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누구를 먼저 찍은 다음에 그것을 편집해서 영화관계자에게 보여준 후 돈을 두둑히 받고 난 다음 다시 촬영을 시도해 보라는 조언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그녀 자신을 찍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두천에 올 때마다 그녀는 지친 나를 위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빌려주었고, 음식을 마련해 주었으며 늘 새 커피를 내려 주었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과자를 옷 속으로 집어 넣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혼자 이 곳에서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랑’ 따위가 가능이나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녀는 한 번 실수해서 지독하게 배웠으면 됐지 다시는 미군이 아니라 미군 할아버지가 와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가끔 도움이 필요한 러시아 여성들을 여성단체에 연계해 주라며 소개시켜주기도 했고, 그들의 훌륭한 상담자 역할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서 왕언니와 같은 존재였고 나는 그녀의 재치와 지혜에 늘 감탄하곤 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지연되고 동두천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나는 근 1년간 그녀와 접촉하지 못했다. 내가 거의 촬영을 마무리 할 시점에도 그녀는 클럽에서 계속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두천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집에도 찾아갔지만 이사를 가고 없었다. 다만 다른 러시아 여성들을 통해서 그녀가 다시 한 미군과 계약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친 G는 여러명의 미군들과 스포츠 카 안에 앉아 있었다. 한 눈에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짙은 화장을 하고 얼굴이 발그스레해진 그녀는 깔깔거리며 차안에서 미군들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는지 소리를 지르며 계속 깔깔 웃었다. 나는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그녀인지 아닌지 보려고 했고, 그녀라면 아는 체라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순간 나를 발견한 그녀는 힐끗 놀라더니 순식간에 아주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사나운 얼굴이 되었다. 그녀의 그런 표정 변화에 나는 마치 그녀에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G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운전석에 있던 미군에게 ‘빨리 가자 여기 재미없어’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스포츠카는 내 앞에서 사라졌고 그 후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새벽 2시 반쯤

새벽 2시 반쯤, 밖에 내 놓은 쓰레기봉지가 와르르 쏟아지며 현관문을 따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감싸 안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부들부들 떨며 들어왔다.

그녀는 클럽에서 일이 끝난 후, 친구 집에서 미군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 중 한 미군이 마리아에게 뚱뚱하다며 시비를 걸어왔고 마리아는 욕설로 대꾸했다고 한다. 그러다 미군이 그녀의 가슴을 쳤고 마리아는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창문을 켰다. 그러자 미군은 그녀의 몸 뒤에서 팔을 쥐고는 바닥에 내리쳐 머리와 등을 짓밟았다고 한다. 러시아 여성들이 말리자 미군은 마리아를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치고는 한국경찰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러시아 여성들은 불법 체류 중이었던 마리아에게 빨리 피하라고 했고, 그녀는 그 길로 황급히 뒷골목을 통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당시 나의 카메라는 거실 소파에 있었다. 언제나 촬영대기 상태였던 내 카메라는 마리아의 언저리를 돌며 1년 넘게 그녀의 시시한 일상만, 그것도 마리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락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만을 줄기차게 촬영하고 있었다. 이 곳 기지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나는 여기에서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으며 단지 이곳에서의 여성들의 삶이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임을, 아니 단순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여성들의 삶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미군에게 맞고 돌아온 이 순간은 그야말로 가장 ‘따근따근한 사건’ 이었고 영화에서 ‘한방’ 을 건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늘 자의식이 강해 카메라를 의식하던 마리아는 이 순간만은 자신의 고통 앞에 순수하게 몰입하고 있어 내가 카메라를 든다고 해도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마리아의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나는 속으로 호재를 부르며 이성적으로는 이미 소파에 손을 뻗어 카메라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몸은 순간적으로 멈칫거렸다.

한 1초 동안 내 머리 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광경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 마리아의 상황을 함께 겪을 것인가, 이 장면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찍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순간적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치다가 결국 나는 카메라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저 손을 뻗어 수건걸이에 걸린 수건을 빼 마리아의 팔에 박힌 유리조각을 빼고는 상처를 지혈했다. 우리는 혹시 경찰이 올까하여 집의 모든 불을 끄고 함께 침실로 들어갔다. 끄끄

거리며 울음을 참던 마리아는 자신이 한국에 온 결과가 이런 것이라며 동두천에 갇힌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녀는 내게 왜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지 않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한국에서 겪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후에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으니 카메라로 자신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그토록 자존심과 자의식이 강해 내 카메라에 결정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던 그녀가 울면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오히려 나에게 주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나는 오히려 그녀에게 ‘괜찮아.. 안 찍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마리아는 미군부대에 가서 상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에게 증거용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후에 내게 남은 증거는 이 ‘증거용 사진’ 밖에는 없다. 동두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한 일주일간은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와 자학이 몰려와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그저 ‘앞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또 나타날테니 기다리자’ 며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큐멘타리를 찍는 2년여 동안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았거니와, 자존심을 회복한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허락하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동령 Kim Dong Ryung

